

현대시 비기출 N제 해설

-해설 형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 2. 3 3. 2 4. 5 2103(21년 3월 교육청), 21사관(21학년도 사관학교)

-교육청은 년도입니다. N년이란 말은 N년에 출제된 시험이란 뜻입니다.

-사관학교는 학년도입니다. N학년도란 말은 N-1년에 치러진 시험이란 뜻입니다.

(작품 설명)

-교육청 해설에 작품 설명이 있는 경우는 그것도 넣었습니다. 복습에 도움이 될지도...?

N. [출제의도] -교육청이 밝히는 출제의도입니다. 사관학교에는 없습니다.

정답 해설~~~~~

-교육청은 답지 해설이고 사관학교는 제가 쓴겁니다. 길티기어 OST 매들리와 함께 쓴 해설이라 좀 난잡할 수도 있으니 의문 있으면 오르비 쪽지나 댓글 주세요

[오답풀이]

~~~~~

-오답문항 4개의 풀이입니다만 교육청은 왜인지 몰라도 일부만 되어 있고네. 사관학교는 제 물리적인 시간상의 이유로(입대 2개월 남은 대한건아가 지금 7시간동안 이것만 하는 중입니다 양해 바랍니다....) 제가 풀었을 때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 오답만 해설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문이 있거나 해설안한 선지의 해설이 필요하다면 댓글이나 오르비 쪽지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문학개념을 묻는 표현상의 특징 문항은 전부 해설했습니다.

교육청 해설 ..... 02P

사관학교 해설 ..... 23P

## 교육청 해설

1. 1 2. 3 3. 2 4. 5 2103

### (가) 김남조, 「 설목(雪木) 」

이 시는 이별한 화자가 한자리에서 추위를 견디며 하얀 눈을 맞고 서 있는 나무의 모습을 형상화하여 내면의 슬픔과 자신의 사랑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화자가 가꾸어 온 ‘설목’은 상대방에 대한 절대적이고 순결한 사랑을 표상하고 있다.

(나) 김광섭, 「 겨울날 」 이 시는 겨울날 힘든 상황에서 이사를 하고 그곳에서 어머니의 부재를 실감하게 된 화자가 삶의 고단함과 쓸쓸함을 느끼며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있는 작품이다. 화자는 겨울날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려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으며 죽음에 대한 인식 또한 드러내고 있다.

#### 1.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을 파악한다.

(나)에서 ‘총총히’, ‘땡땡’, ‘어정어정’, ‘왈각’ 등과 같은 의태어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으나, (가)에는 의태어를 사용한 표현을 찾기 어렵다.

#### [오답풀이]

② (가)와 (나) 모두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는 표현은 찾을 수 없다.

③ (가)에서는 독백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나)에서는 대화의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가)와 (나)는 모두 점층적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대상의 역동성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⑤ (가)와 (나)는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세대 변화를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다.

#### 2. [출제의도] 시어와 시구의 의미를 이해한다.

(나)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갈라진’은 어머니와 이별하게 된 화자의 황망함을 드러낸 것이다. 화자가 성찰을 통해 내적 성숙을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오답풀이]

① (가)에서 가을에 이별한 상황에 주목해 보면, ‘시냇물마저 여위는’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만물이 쇠락한다는 계절의 특성과 연결해서 감상할 수 있다. 이는 화자의 쓸쓸한 처지와 조응한다고 볼 수 있다.

#### 3.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통해 작품을 감상한다.

(가)에서 화자는 상대방이 떠난 후에 ‘미워하면서 나를 미워하면서 / 내 옆에 남아줄이 더욱 백 배는 / 고맙고 복되었을 것’이라고 돌이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이별하지 않기를 바랐던 화자의 마음을 드러낸 것이지 이별의 슬픔을 승화했다고 보기 어렵다.

#### [오답풀이]

③ ‘나뭇가지’가 ‘사철 고드름’을 달고도 위로 뺨는 모습으로 ‘설목’을 형상화한 것은 어떤 시련에서도 사랑을 지키고 싶다는 지향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⑤ 마지막 연에서 화자가 상대방을 부르며 ‘불씨 한 줌 머금고 죽어도 좋겠다’는 것은 화자 내면의 절대적 사랑을 강조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4. [출제의도] 시구의 의미를 이해한다.

㉞은 화자가 어머니의 죽음을 어느 날 갑자기 당면하게 된 것과 같이 주변 사람들과 이별하게 될 어느 날을 떠올리고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5. 2 6. 1 7. 2 8. 2 2104

#### 5.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가)에서는 ‘복두성좌’라는 시어를 반복하여 ‘우리 집’을 보호해 주는 존재라는 의미를, (나)에서는 ‘달걀들’이라는 시어를 반복하여 화자와 동일시된 대상이라는 의미를 부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오답풀이]

① (가)에서는 마지막 행에서 청유형 어미를 활용해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지만, (나)에서는 청유형 어미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가)와 (나)는 모두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가)와 (나)는 모두 수미상관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나)에서는 4연의 ‘추운’, ‘따스한’ 등을 통해 촉각적 심상의 대비가 제시되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나, (가)에서는 촉각적 심상의 대비가 제시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6.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에 따라 작품 이해하기

㉠을 보면, ‘복두성좌’는 ‘우리 집’을 보호하는 주체이므로, 화자 가족의 불행을 초래하는 주체로 형상화되어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풀이]

② ㉠을 보면, ‘천상’은 가족을 보호하는 ‘복두성좌’가 밤마다 존재하는 공간으로 형상화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을 보면, ‘그것들’은 화자가 비록 ‘배가 고프다 하더라도 ‘쉽게 먹을’ 수 없는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을 보면, ‘노란 것들’은 ‘마분지곽 위로’ ‘기어오르’며 생명력이 느껴지는 행동을 하는 주체로 형상화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을 보면, ‘너희들’은 ‘희망소비자 가격보다’ 낮은 비용으로 ‘팔려온’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 7.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 파악하기

(가)에서 화자는 ‘아이’에게 ‘어서 돌아와’ ‘우리 집으로 가자’고 하고 있으므로, ‘우리 집’은 화자가 가족과 함께 회귀하고자 하는 공간으로 활용된 소재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또한 (나)에서 화자는 ‘냉장고’를 열고 접한 ‘달걀들’을 통해 자신 ‘역시 여권이 분실된’ 것과 같은 처지임을 확인하게 되므로, ‘냉장고’는 화자가 자신의 처지를 확인하게 되는 기회로 활용된 소재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 8.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나)에서는 ‘나’가 ‘부화를 기다리고 있’으므로 ‘달걀들’이 시적 화자와 동일시되어 있는 시적 대상이라고 볼 수 있으나, (가)에서는 ‘거리 끝’이 ‘저녁 한길’로 나간 시적 화자가 보게 된 시적 대상일 뿐 시적 화자와 동일시되어 있는 시적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풀이]

① (가)에서는 ‘아이야’를 통해 시적 화자가 시적 대상인 ‘아이’를 부르고 있고, (나)에서는 ‘너희들’을 통해 시적 화자가 시적 대상인 ‘달걀들’을 청자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가)에서는 시적 화자가 ‘보오얀 초생달’을 통해 시적 대상인 ‘초생달’에 대한 시적 화자의 주관적 인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나)에서는 시적 화자가 ‘달걀들의 속삭임소리’를 통해 시적 대상인 ‘달걀들’에 대한 시적 화자의 주관적 인식을 청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가)에서는 화자가 ‘저물도록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는 ‘아이’를 기다리는 시적 상황이 드러나고, (나)에서는 ‘우리’ ‘형제들’이 ‘중풍으로 쓰러진 아버지’의 ‘입원비’를 ‘걱정’하는 것에서 ‘가난’한 시적 상황이 드러나므로 적절하다.

⑤ (가)에서는 ‘수유’하다고 표현된 짧은 시간을 ‘영위’하는 ‘인간’과 ‘무궁’하다고 표현된 끝이 없는 ‘우주’가 ‘인연 되어 있’다고 표현되어 대비되는 시적 대상들에 의해 형성되는 맥락이 드러나고, (나)에서는 ‘살아서 즐거워 보이는 ‘병아리’와 ‘살아서 불행하다’는 ‘나’의 모습이 대비되어 시적 대상과 시적 화자에 의해 형성되는 맥락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9. 2 10. 3 11. 3 12. 4 2107

### 9.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가)는 ‘뜨거운’이라는 촉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소외된 존재들에게 보내고 싶은 ‘입술’의 온기를 구체화하고 있다. (나)는 ‘차운’이라는 촉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물보라’의 부정적 속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 [오답풀이]

① (가)와 (나) 모두 수미상관의 구성이 나타나 지 않는다. ③ (가)에는 묻는 형식이 나타나나 그에 대해 답하는 형식은 나타나지 않으며, (나)에는 묻고 답하는 형식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가)에는 색채어 ‘푸른’이 나타나나 (나)에는 색채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⑤ (가)와 (나) 모두 반어적 표현도,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도 나타나지 않는다.

### 10.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파악하기

[C]에서 화자는 ‘별들’, ‘수녀들’, ‘수인들’이 ‘의지할 가지 없’이 ‘떨고 있’다고 여기고, 황혼을 통해 그들에게 자신의 ‘입술’을 보내고 싶어 한다. 따라서 ‘의지할 가지 없’이 ‘떨고 있’는 존재들이 ‘별들’, ‘수녀들’, ‘수인들’에게 위로 받기를 바란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 [오답풀이]

① [A]에서 화자는 ‘인간’이 ‘외로운’ 존재임을 인식하고 이를 ‘바다의 흰갈매기’에 비유하여

부각하고 있다.

② [B]에서 화자는 '황혼'의 '손'에 '입술'을 '맞추어 보'려는 것에서 황혼의 품에 안긴 '모-든 것'에 '입술'을 '보내'고자 하므로 황혼의 '손'에서 '모-든 것'으로 인식이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D]에서 화자는 '행상대'나 '인디언'이 황혼의 '품안'에 안기기를 바라며, '황혼'에게 '지구의 반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달라고 말함으로써 '지구의 반쪽'에 있는 존재들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⑤ [E]에서 화자는 오늘 맞아들인 황혼으로 인해 '오월의 골방'이 '아늑'해졌음을 느끼면서, '내일도 또 저-푸른 커-튼을 걷게 하겠지'라는 표현을 통해 오늘 밤이면 사라지는 '황혼'이 '내일도' 다시 찾아올 것이라 여기며 '황혼'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11. [출제의도] 시상 전개 방식 파악하기

(나)에서 화자는 '물거품'같이 '일었다간 스러'졌던 과거의 자신을 '아득히 띄워보내'려 하므로 이러한 행동에서 과거 자신의 모습에 대한 미련을 읽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화자는 자신의 '옛날'과 현재를 단절시킴으로써 긍정적인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풀이]

① 화자는 과거에 겪었던 시련을 떠올리며 '차운 물보라'라고 표현하고 있다.

② '부서지는 파도' 속에 '해로가 일렁'이는 상황에도 화자는 자신이 현재 홀로임을 느끼고 있다.

④ 화자는 현재 '자폭의 잔'을 채우던 '옛날'을 '아득히 띄워 보내며 부정적 과거와 단절되기를 바라고 있다.

⑤ 화자는 현재 '바다만' 한 '슬픔'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눕우치지 않을' '하늘'을 꿈꾸고 있으므로 '눕우치지 않을' 수 있는 미래의 삶을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12.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나)에서 '바다'는 '차운 물보라'나 '부서지는 파도'와 같이 고난과 슬픔의 부정적 속성을 지닌 공간으로 나타나 있다. 반면 바다 위에 존재하는 '하늘'은 '물거품'으로 '자폭의 잔을 채우던' 과거의 자신과는 달리 '눕우치지 않'아도 되는 긍정적 대상으로 나타나 있다. 화자는 자신이 '꿈꾸고 있는 하늘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바다만' 한 '슬픔'을 딛고 '꽃처럼 황홀한 순간'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므로 화자는 바다를 하늘로 여기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슬픔을 극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고난과 슬픔에 굴하지 않고 긍정적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의지를 바탕으로 슬픔을 극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오답풀이]

① (가)에서 화자가 '커-튼을 걷'음으로써 골방 밖 세계에 있는 황혼이 골방 안으로 들어오게 되며, 이를 통해 차단된 두 공간이 연결될 수 있다. 이를 인식하고 있는 화자는 골방의 '커-튼을 걷'어 황혼을 맞아들이고자 하고 있다.

② (가)에서 골방 안에 있는 화자는 골방 밖 세계에 있는 별들, 수녀들, 수인들, 행상대, 인디언 같은 소외된 존재들에게 만물을 포용할 수 있는 황혼의 기운이 전해지기를 바라고 있다.

③ (가)에서 골방 안에 있는 화자는 골방 밖 세계에 있는 소외된 존재들을 직접 만날 수 없는 고립된 공간의 한계를 느끼고 있으므로 황혼을 통해 그들에게 자신의 입술을 보냄으로써 그들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전하고 싶어 한다.

⑤ (나)의 화자는 1연에서 바다의 ‘차운 물보라가 이마를 적실 때마다’ ‘울음을 참’는 소극적 자세를 보였으나, 5연에서는 ‘꽃처럼 황홀한 순간’을 마련하여 하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능동적인 자세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3. 1 14. 3 15. 5 16. 3 2110

(가) 박두진, 「설악부」

이 시는 ‘설악’을 소재로 하여 이상 세계를 열망하는 시인의 정신세계를 형상화하고 있다. 이 시에서 ‘설악’은 순환적 질서에 따라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는 영원하고 신성한 모성의 세계로 그려진다. 이 속에서 화자는 죽음의 절망에서 벗어나 세대가 항구적으로 이어지게 될 미래를 그리면서 새로운 이상 세계가 도래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노래한다.

(나) 이기철, 「길의 노래」

이 시는 ‘대구’와 ‘은혜사 솔바람 소리’가 양쪽에 놓여 있는 길 위에 선 화자의 모습을 통해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대인의 삶을 조명한다. 무위한 자연의 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을 간절히 바라면서도 인위적인 세속의 삶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려운 현대인의 삶을 성찰적 시선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13.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을 파악한다.

(가)에서는 ‘울어라’, ‘그립다’ 등의 시어를 반복하여, (나)에서는 ‘어디이겠는가’, ‘있을까’ 등의 시어를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14. [출제의도] 시상이 전개되는 특징을 이해한다.

[B]에서는 시상이 ‘산’에서 ‘양지짜’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양지짜’에 꽃이 피고 무덤이 푸르러진 때를 제시하고 있다. ‘양지짜’는 ‘꽃이 피는 때’, ‘내 푸른 무덤’과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백골’이 묻힐 곳이 부정적인 공간으로 바뀔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홀날린다’, ‘뒤덮었다’, ‘빠진다’는 모두 존재를 압도하는 ‘눈’과 관련된 시어들로, 화자가 처한 상황의 어려움을 나타낸다.

② ‘고요-하다’에 이어 ‘너무 고요하여’를 제시함으로써 화자가 있는 공간이 매우 적막한 분위기임을 강조하고 있다.

15. [출제의도] 시어 및 시구의 의미를 이해한다.

‘늘 내일로만’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항상 앞으로만 나아가려 하는 화자의 삶의 태도를 부각한다. 따라서 이것이 현실에 초연할 수 있다는 화자의 믿음을 부각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④ ‘예지도’는 인간 세계에서 중요하게 생각되어 온 지혜로운 생각마저도, ‘산 끝’에 있는 ‘물’과 같은 자연에서는 거추장스러운 것 즉, 성가신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한다.

16.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나)에서 '달력'과 '일과표'가 '내 늑골 밑에서 보채던' 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위적으로 짜인 삶에 얽매어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을 보여 준다. 따라서 이것이 인위적인 세계에서 벗어나 평안을 찾고자 하는 현대인의 열망을 형상화한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다른 태양이 쬐는 날 아침' 에 '내가 다시 무덤에서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한 것은, 자연의 순환적 질서 속에서 '나'가 '무덤'에서 부활하는 즉, 생명이 억압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화자의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④ (나)에서 '대구' 는 세속적인 세계를, '솔바람 소리'는 무위한 자연의 세계를 표상한다. 따라서 '길'을 '한쪽 끝'에는 '대구' 를, '다른 쪽'에는 '솔바람 소리'를 달고 있다고 표현한 것은, 무위한 자연이 주는 평안을 회구하면서도 세속적인 세계에 얽매어 그 세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대인의 삶을 함축적으로 보여 준다.

17. 1 18. 2 19. 4 2203

**(가) 백석 「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

이 시의 제목은 남신의주 유동에 사는 박시봉 씨 집 ' 에서 라는 뜻으로 당시 편지 봉투의 발신인 주소에 흔히 쓰던 형식으로 되어 있다. 1 ~ 행까지는 가족들과 헤어져 객지에서 외로이 떠돌다 누추한 거처를 마련하게 된 화자의 외로운 처지와 고단한 행적을 잘 보여 준다. 이어서 행부터는 화자가 방 안에서 여러 날 동안 자신이 살아온 삶을 되새기며 자신을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그러다가 자기 안에 갇든 내면의지를 굳고 정한 갈매나무 에 견주어 떠올림으로써 앞으로 자신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나) 김수영 「 그 방을 생각하며 」**

이 시는 4.19 혁명의 실패와 좌절에 대한 시인의 대응을 잘 보여 준다. 혁명의 실패는 화자의 가슴을 메마르게 하고 혁명의 구호와 노래도 헛소리처럼 느끼게 한다. 그렇지만 화자는 진실로 무거워야 할 실패의 무거움을 오히려 가벼움으로 삼으려는 역설적인 발상을 통해 그 좌절감에서 비켜서고 싶어 한다. 그렇지만 화자는 그 좌절감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며 노래를 잃고 가벼움마저 잃어도 기쁘고 풍성함을 느끼는 자신에 대한 냉소와 서글픔을 노래한다.

**17.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을 파악한다.**

(가)는 '내 가슴이 짝 메어 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등과 같이 유사한 형태의 문장을 반복하였고 (나)는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 와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었지만' 등과 같이 유사한 형태의 문장을 반복하였다. 따라서 (가)와 (나)는 모두 유사한 문장의 형태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18. [출제의도]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한다.**

(가)에서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양금이 되어 가자 앉고'는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 화자의 마음속에 있던 슬픔과 한탄 등이 가라앉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양금'이 되어 '가라앉'는 것으로 제시한 것이 화자의 내적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드러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9.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가)의 맥락을 고려할 때, '더 크고, 더 높은 것'은 화자가 '나를 마음대로 굴러 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화자 자신을 '더 크고, 높은 것'과 동일시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권을 붙'인 방은 화자가 세를 듣게 된 방으로, 그 방이 '습내 나는 좁고, 누룩한 방'이라고 한 것은 화자가 처한 현실 상황의 초라함을 보여 준다.

② (가)에서 '문밖에 나가지도' 않고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썩김질'하는 화자의 모습은 화자가 방 안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생각을 되새기는 공간임을 보여 준다.

③ (나)의 '모든 노래를 그 방에 함께 남기고 왔을 게다'라고 한 것은 혁명의 실패로 인해 좌절하고 있는 화자의 상황을 보여 준다.

20. 4 21. 2 22. 5 23. 5 24. 5 2204

20. [출제의도] 시상 전개 방식의 특징

(가)는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드래도'의 반복을 통해, (나)는 '어떤 때는'의 반복을 통해 시구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1.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A]에서 '하늘과 땅 사이를 어렴풋이 이끌고 가는' '마음'은 '달래꽃'이 '피어나'게 하는 원인이고, 민중이 고난을 겪는 상황과 관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A]에서 '달래꽃'은 화자로 하여금 민중을 떠올리게 하는 대상으로서, '하잘것없'지만 '길이 멀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민중의 영속성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B]에서 '달래꽃'이 '바윗돌처럼'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솟아오른'다는 것에 강인한 생명력이 드러나므로 적절하다.

④ [B]에서 '달래꽃'은 '긴긴 역사'와 '막아낼 수 없는 위대한 힘'을 가졌다는 것에서 민중의 저력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C]에서 '달래꽃'이 '햇볕과 바람과 벌나비와' '입 맞추고 살아가듯' '네 고운 청춘이 나와 더불어 가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22. [출제의도] 시어의 기능 및 의미 이해

(가)의 1연에서 '크나큰 그 어느 알 수 없는 마음이 있어' '한 송이의 달래꽃'이 '피어'난다고 하였고, (나)의 2연에서 '마음'은 '빈집이어서' '전나무 숲'이 '들어앉았다 나'간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23. [출제의도] 글의 내용 이해

㉠은 도덕과 인의를 지켜 '양비'가 '온전해지면' 몸이 살찌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① ㉠에서 ‘나’가 ‘살찌기를 구’하다가 ‘양비마져 잃게 될까 염려’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② ㉡에서 ‘화려한 거처’, ‘사치스러운 음식’, ‘즐거운 음악’, ‘마음을 기쁘게 하는 여색’은 몸을 살찌우는 네 가지 조건이며 ‘양비란 것은’ 이것들을 ‘바탕으로 삼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③ ㉢에서 ‘장사를 잘하지 못한 것’은 ‘초나라 장사꾼’이 ‘형산의 옥’을 ‘금은보화’와 맞바꾼 것을 의미하며 ‘형산의 옥’은 마음을 살찌우는 것을, ‘금은보화’는 몸을 살찌우는 것을 나타낸 것이므로 적절하다.
- ④ ㉣에서 ‘옛날의 현인과 군자’가 ‘마땅히’ ‘살찌워야 할 것을 살’폈다고 하여 마음을 살찌우는 것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4.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다)에서 ‘형산의 옥’은 마음을 살찌우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세속적 가치와의 유사성을 활용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① (가)의 2연에서 ‘마음에 걸친 거추장스러운’ ‘수의’는 심적인 억압을 옷에 빗대어 나타냈으며, ‘홀홀 벗고 싶’다고 심적인 억압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형상화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② (가)의 3연에서 ‘예쁘디예쁜 손’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을 ‘뜨거운’ 이라는 촉각적 시어를 활용하여 나타내었으므로 적절하다.
- ③ (나)의 1연에서 ‘마음’에 ‘별 내리는 고운 마루’가 ‘들어와’ ‘별이 보고 싶은’ 화자의 바람이 마음속에서 실현되었음을 나타내었으므로 적절하다.
- ④ (나)의 2연에서 ‘고요’를 ‘둥그런’이라는 시각적 시어를 활용하여 실재하는 대상처럼 드러내었으므로 적절하다.

25. 1 26. 5 27. 3 28. 3 2207

**25.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가)는 1연과 8연의 ‘그것은 문이 아니었다’라는 시행의 반복을 통해, (나)는 3연의 ‘잠글 수 없는 것이 어디 시간뿐이랴’, ‘아아, 하나의 작은 죽음이 얼마나 큰 죽음들을 거느리는가’라는 물음의 형식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풀이]**

- ② (나)는 생명력이 움트는 봄과 누이를 잃은 화자의 상황이 대조적이라 할 수 있지만 (가)에서 대화체의 형식을 찾을 수 없다.
- ③ (가)에는 과거와 현재의 비교가 나타나 있지 않다.
- ④ (가)에는 계절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가 나타나 있지 않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26. [출제의도] 시어와 시구의 의미 파악하기**

‘유령처럼’ ‘꽃을 꺾는다’는 것은 누이의 죽음과 상관없이 생명력을 피우는 봄을 받아들일 수 없는 화자의 슬픔을 나타낼 뿐 누이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극복한 모습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② 1연의 ‘누이여’와 ‘이파리 하나 피우지 못한 너의 생애를 소리없이 꺾어갔’다는 부분을 통해 누이가 때 이른 죽음을 맞이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 있는 나는 세월을 모른다’고 한 것은 살아 있음에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화자의 상황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③ 1연의 ‘이파리 하나 피우지 못한 너의 생애를 소리없이 꺾어갔던 그 투명한 기억’과 연결하여 보면 ‘기억의 얼음장’은 누이에 대한 기억임을 알 수 있다. ‘살아 있는 나는 세월을 모른다’, ‘하나의 작은 죽음이 얼마나 큰 죽음들을 거느리는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화자가 누이를 잃어 슬퍼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억의 얼음장’에 ‘부르지 않아도 뜨거운 안개가 쌓인’다는 것은 누이에 대한 기억이 화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오르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④ ‘봄’이 되자 ‘접혔던 꽃술’이 ‘또다시’ 피진다는 것은 누이의 죽음과 관계없이 다시 찾아온 봄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27.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 파악하기**

㉠은 ‘해바라기’가 피어 있고 ‘수천 마리의 낮닭이 깃을 치며’ 우는 곳이므로 생명력이 느껴지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은 누이를 잃은 화자의 슬픔을 형상화한 공간이다. 뜨거운 ‘햇덩이’가 ‘이글거리는’ 곳을 ‘맨발로 산보’한다고 표현되어 있으므로 화자가 고통을 느끼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28.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가)에서 ‘배’가 떠나자 ‘별빛’이 쏟아져 ‘어둠’을 밝히는 장면은 문 안의 꿈속에서 본 모습일 뿐 꿈속 세계가 현실에서도 이어짐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꿈속 세계가 현실에서도 이어짐은 ‘그것은 문이 아니었다’라는 시행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오답풀이]**

② (가)에서 ‘마을’은 해바라기가 피고 낮닭이 깃을 치며 우는 삶의 공간이고 ‘바다’는 ‘꽃상여’가 도착하는 죽음의 공간이다. 따라서 마을에서 바다를 가기 위해 거치는 ‘산모퉁잇길’은 삶과 죽음이 연결된 것임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④ (나)에서 ‘이파리 하나 피우지 못한 너의 생애를 / 소리없이 꺾어갔던 그 투명한 / 기억을 향하여 봄이 왔다’와 ‘떠다니는 내 기억의 얼음장마다 / 부르지 않아도 뜨거운 안개가 쌓일 뿐이다’를 통해 화자는 누이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봄은 그러한 누이의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시간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나)에서 누이의 죽음인 ‘하나의 작은 죽음’이 ‘큰 죽음들’을 거느린다고 하였으므로 누이의 죽음이 슬픔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9. 2 30. 4 31. 3 2210

**29.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을 파악한다.**

[B]에서 ‘밤마다 밤새도록 꺼지고 싶지 않았지’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화자는 자신의 심정을 ‘등잔불’에 투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도망하고 싶던 너의 아들’, ‘가슴 한구석에 늘 차고있길래’ 등을 통해 볼 때, 화자가 시적 공간에 대해 친밀감을 느꼈다고 보기는 어렵다.

**30. [출제의도] 시구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한다.**

(나)에서 어린 화자가 ‘램프불 밑’에서 본 것은 ‘재봉틀을 돌리는 젊은 어머니’와 ‘실을 감는 주름진 할머니’뿐이었다. 화자가 조금 자라서 ‘칸델라불 밑’에서 본 것은 ‘협상국은 금점꾼들’과 그 ‘아내들’의 모습이었다. 화자가 소년이 되어 ‘전등불 밑’에서 본 것은 ‘가설극장의 화려한 간판’과 ‘가갯방의 휘황한 불빛’이었다. 화자는 이렇게 점점 자라면서 세상이 넓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램프불 밑에서 자랐다’, ‘칸델라불 밑에서 놀았다’, ‘전등불 밑에서 보냈다’의 변화는, 화자가 경험한 세계가 점점 확장되어 왔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31.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가)의 ‘마음의 불꽃’은 ‘도망하고 싶던’ 화자가 고향을 떠나면서 거느렸던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이것이 화자가 고향을 떠나면서 느꼈던 아픔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나)의 ‘새 파란 불꽃을 뿜는 불’은 화자가 어린 시절 집에서 놀면서 보았던 금점꾼들과 그 아내들의 모습만 돌음새졌던 것으로, 고향을 떠나고자 하는 화자의 열망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화자가 ‘고향아’ ‘꽃은 피지 못했다’라고 한 것은, 화자가 고향에서 슬픔을 느끼게 된 것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되돌아온 고향이 화자가 생각했던 고향과 거리가 있는 세계였음을 나타낸다.

② (나)에서 화자가 ‘내 망막’에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실루엣만 남았다’라고 한 것은, 화자가 어린 시절 보았던 어머니와 할머니를 그리워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화자가 자신의 근원인 모성적 세계를 그리워함을 보여 준다.

④ (가)의 ‘내 곳곳을 헤매어 살길 어두울 때’는 화자가 고향을 떠나 느꼈던 힘겨움을 드러내는 것이고, (나)의 ‘이곳 저곳 떠도는 즐거움’은 화자가 고향을 떠나 여기저기를 유랑하면서 느꼈던 재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⑤ (가)의 ‘너의 부름이 귀에 담기어짐’은 고향을 떠나 지내던 화자가 고향의 부름에 이끌리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나)의 ‘내 시야는 차츰 좁아져’는 고향을 떠나 유랑하던 화자가 결국 자신의 구심점인 고향으로 회귀하려는 의식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32. 1 33. 2 34. 5 2303

**(가) 정지용, 「 장수산 1 」**

이 시는 깊은 겨울 산의 고요한 정경을 ‘벌목정정’을 통해 환기하며 시작한다. 다람쥐도 쫓지 않고 멧새도 울지 않는 절대 고요와 부동의 공간 속에서 화자는 조차히 늙은 옷걸 중의 맑고 깨끗한 정신적 경지를 뒤따르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다. 그렇지만 화자는 바람도 일지 않는 깊은 산에 쉽게 동화되지 못하고 심히 흔들리는 내면의 동요를 느낀다. 그러면서도 차고 울연히 이 겨울을 견디겠다는 견고한 삶의 자세를 드러내며 시상을 마무리한다. 흔들리는 내면의 시름 속에서도 정신적 긴장을 늦추지 않는 화자의 치열한 정신적 고투가 역력히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나) 고재중, 「 고요를 시칭하다 」**

이 시는 초록으로 물든 오월의 마당을 둘러싼 깊은 고요를 노래하고 있다. 수국 송이처럼 몽실몽실 부푸는 오월의 고요 속에서 화자는 송순주 한 잔에 그리운 어머니와 아버지의 고요했던 모습을 떠올리며, 초록 바람에 반짝반짝 누설해 놓은 오월의 은밀한 연주를 들으면서 고요에 물들어 간다. 적막한 고금의 시골집 마루에서 마주한 오월의 고요를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통해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32.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을 파악한다.**

‘아름드리 큰 솔’이 ‘베어짐직도 하이’라고 한 것은 깊은 산속에서 큰 나무들이 베어지며 내는 소리를 환기하여 깊은 산속의 고요를 부각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통해 인간에게 아낌없이 내어 주는 자연의 속성이 환기된 것은 아니다.

**33. [출제의도] 시상의 흐름을 파악한다.**

[A]에서는 고요가 초록을 낳았다는 표현을 통해 마당을 물들인 초록에 주목하도록 한다. 이어지는 [B]에서는 초록의 군림이 점점 더해진다는 표현을 통해 마당에 초록이 점점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여기에 고요의 심장을 붉은 진동으로 물들이는 덩굴장미의 붉은 색채가 어우러지면서 오월의 계절감이 부각된다.

**34. [출제의도] 외적 증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가)의 화자는 바람도 일지 않는 장수산의 고요에도 심히 흔들리는 시름을 안고 있는 인물이다. 따라서 화자 내면의 고요가 외부 세계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의 ‘눈과 밤이 종이보담 희고녀!’는 흰색의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하얗게 눈이 내린 겨울 달밤의 고요한 장수산의 분위기가 잘 드러나도록 하고 있다.

② (나)의 화자가 송순주 한 잔에 떠올린 추억 속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각각 ‘소박한 고요’와 ‘묵묵한 고요’를 담고 있는 인물들로, 화자가 마주하고 있는 ‘이런 정오’의 고요에 잘 어울리는 인물로 볼 수 있다.

③ ‘찌르렁’하고 들릴 것 같은 깊은

산속의 메아리 소리와 딱 한 번 들린 동박새의 울음소리는 모두 고요한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활용된 소리이다. 고요한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소리를 활용함으로써 오히려 고요가 부각되는 효과를 얻는 것이다.

④ (가)의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는 촉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고요를 표현한 것이고, (나)의 ‘삼베울만치나 무수한 고요’는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고요를 형상화한 것이다.

35. 3 36. 4 37. 1 38. 4 39. 4 2304

**35.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나)는 ‘이 땅에서 냄새나지 않는 자가 누구인가’에서, (다)는 ‘그러므로 사람은 ~ 어찌 이득이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 잠수부에게 편한 것이 있겠습니까?’ 등에서 설의적 표현을 활용해 의미를 부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6. [출제의도] 외적 증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나)에서 ‘물뱀들’이 살아있길 바라는 ‘그 저수지’는 화자가 물이 순환하기를 기대하는 공간을 나타낸 것이므로 적절하다. 하지만 (가)에서 ‘밭목을 오여’싼 ‘시궁치’는 화자가 꿈꾸던 안식의 공간을 나타낸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암초를 벗어나면 태풍과 싸우고 ‘산호도는 구경도 못 하는’ 것은 화자의 고달픈 삶을 나타낸 것이므로 적절하다.

② (가)에서 ‘목숨’이 ‘깨어진 배 조각’처럼 흩어지고 ‘내 꿈’이 ‘밀항하는 쟁크와 같’다는 것은 흘러가는 배의 노정에 화자의 삶을 관련지어 나타낸 것이므로 적절하다.

③ (나)에서 ‘마음’에 덮은 ‘뚜껑이 생긴 그물이었음’을 깨닫는 것은 부정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나타낸 것이므로 적절하다.

⑤ (가)에서 ‘삭아 빠진 소라 껍질’에 붙어 온 것은 비극적 운명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나)에서 ‘물과 진흙의 거대한 반죽’에서 ‘갈대꽃’이 피길 바라는 것은 생명력 있는 삶에 대한 화자의 지향을 나타낸 것이므로 적절하다.

**37. [출제의도] 작품을 비교하여 이해하기**

(가)는 ‘남들은 기뻐하는 젊은 날이었건만 ~ 조수에 부풀어 올랐다’에서 남들과는 다른 처지에 대한 ‘나’의 주관적 인식을, (다)는 ‘지극한 즐거움과 영화로움에 나아감에 건주어 보면 ~ 또 내 일을 다스리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낫냐고 묻는 것에서 벼슬하는 사람과는 다른 처지에 대한 ‘잠수부’의 주관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8. [출제의도] 작품의 맥락 이해하기**

[D]에서 ‘독약 먹이는 세월’에 ‘병든 자’로 살아온 원인은 [E]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A]에서 ‘마음 안의 거대한 저수지’가 부패해 가는 이유는 [B]에서 ‘나’가 ‘목은 관료들이 ‘숙변’을 들이붓는 것과 같은 ‘치욕’을 받아들인 것에서 찾을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B]에서 ‘치욕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 상황은 [C]에서 ‘나’가 ‘침묵’하고 ‘슬픔’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지속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C]에서 ‘침묵’하고 ‘슬픔’을 받아들인 행위는 [D]에서 ‘나’가 ‘독약 먹이는 세월에 쓸개가 병드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E]에서 ‘본 적이 없다’는 ‘물왕저수지’에 대한 상상은 [F]에서 ‘잉어들은 꺾꺾거리고 물오리때는 날아올라’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9.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글쓴이는 ‘일을 택함의 잘못된 것을 슬퍼’하고 있을 뿐 ‘벼슬길’에 대한 ‘옛사람’의 말이 잘못된 것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나쁜 고기들이 많고 ‘바다 밑’이 매우 차갑다는 것을 통해 잠수부라는 직업의 고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관청’에 전복을 ‘바치는’ ‘양을 다 채우지’ 못한다는 것을 통해 잠수부가 겪는 제도 내에서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부귀영화를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천한 일 중에 욕됨이 없는 것’이 낫다는 것을 통해 잠수부가 지닌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그 말을 기록하여’ ‘벼슬길에 오기를 탐하는 사람들에게 경계하고자’ 하는 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알리려는 글쓴이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40. 3 41. 5 42. 2 2307

**40.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

(가)는 ‘~면 ~다’, ‘~을 ~다고 ~리 수 있느냐’의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나)는 ‘~하는 힘 숨어 있었을까’의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생명력을 지닌 나무와 현대인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오답풀이]**

- ① (나)는 ‘번쩍’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사람들이 두 눈을 뜨는 모습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지만 (가)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 ② (가)에는 겨울과 봄이라는 계절의 모습을 통해 추운 날씨에도 꽃을 피우고 있는 나무의 상황이 드러나지만 (나)에는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지 않는다.
- ④ (가), (나)는 모두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고 있지 않다.
- ⑤ (가), (나)는 모두 공간의 이동에 따라 변화하는 대상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41. [출제의도]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십 년 이십 년 오십 년 얼굴을 구워 내고’ 있는 것은 현대인이 각자의 일생을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 내고 있음을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 ① ㉠은 나무가 땅에 깊숙이 뿌리 내리는 것처럼 젊은이들도 내면의 힘을 키워가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 ② ㉡의 나뭇가지 끝은 젊은이들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을 의미하는 시어일 뿐, 극단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시어가 아니다.
- ③ ㉢는 현대인들이 일상을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 ④ ㉣는 반복되는 일상에서도 현대인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그들의 내면에 숨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2.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가)의 ‘보이지 않는’과 (나)의 ‘볼 수 없는’은 나무가 꽃을 피워 내고 현대인이 현실을 이겨 내게 하는 힘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오답풀이]**

- ① (가)의 ‘노란 얼굴’은 동짓달에 꽃을 피운 개나리의 모습을, (나)의 ‘무표정한 저 얼굴’은 일상에 지친 현대인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 ③ (가)의 ‘하늘’은 나무가 꿈을 피워내며 향해가는 곳을, (나)의 ‘땅속’은 현대인이 반복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공간을 나타낸 것이다.
- ④ (가)의 ‘밝고 넓게 퍼져 나가기’는 나무처럼 젊은이들도 꿈을 피워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의 ‘일으켜 세우는’은 일상에 지쳐가던 현대인이 다시 삶의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⑤ (가)의 ‘뿌리’는 나무가 아름다운 향기를 풍길 수 있게 해 주는 힘의 근원이고, (나)의 ‘불가마’는 현대인이 각자의 내면에 품고 있어 그들이 반복되는 일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힘의 근원이다.

43. 4 44. 1 45. 4 2310

(가) 윤동주, 「간」

이 시는 고전 소설 ‘토끼전’의 근원 설화로 (용녀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토끼의 간이 필요한) 거북이의 유혹에 빠진 토끼가 지혜를 발휘해 간을 지킨 ‘귀토지설’과, 인간에게 불을 알려 준 죄로 제우스의 노여움을 사서 그 벌로 코카서스 산에서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는 프로메테우스의 설화를 소재로 활용했다. 작가는 간을 지키려는 토끼의 의지와 프로메테우스의 희생을 연결하고 내용을 재구성하여 일제 강점기의 현실에서 희생을 감내하며 양심과 신념을 지키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나) 문정희, 「신라의 무명 시인 지귀」

이 시는 신라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지귀 설화’를 소재로 활용했다. 천한 신분으로 선덕 여왕을 사모하다 가 미쳐버린 지귀가 절에서 불공을 드리던 여왕을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고, 그사이 여왕이 지귀를 동정하여 그의 가슴에 놓고 간 금팔찌를 보고 지귀가 온몸이 타올라 불귀신이 되었다는 설화의 내용을 변용했다.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해 설화에 나타난 여왕의 동정심을 적극적인 사랑 찾기로 바꾸어 신분 차이를 넘어서는 진실하고 존귀한 사랑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43.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을 파악한다.

(가)는 ‘여원 독수리야!’, ‘거북이야!’라고 부르는 방식을, (나)는 ‘지귀여, 지귀여, 사랑하는 지귀여’라고 부르는 방식을 사용하여 대상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오답풀이]

③ (나)는 ‘누군 모르랴’, ‘이 무슨 아름다운 업보인가.’라는 의문의 방식을 활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으나 (가)는 의문의 방식을 활용하지 않았다.

44.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한다.

①은 ‘둘러리’를 자꾸 돌려 간을 지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는 위기의 상황에서도 간을 지켜낸 토끼처럼 화자가 간으로 상징되는 자신의 소중한 양심과 신념을 지키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② ‘너’는 ‘내가 오래 기르던 여원 독수리’이다. 이것은 화자가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지만 더는 살찌우지 못한 자아로 볼 수 있다. ‘나’가 뜯어 먹히고 여위는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자아를 살찌게 하려는 것이지, 현재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절망감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③ ‘떠꺼머리’는 지귀를 가리킨다. ㉠은 신분 차이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에 못 맺을 사랑이 없다는 진리를 깨달은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수 있다.

46. [출제의도] 외적 증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나)의 ‘아름다운 업보’는 ‘전생에 지은’과 관련지어 불교의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여왕에 대한 지귀의 사모를 빗댄 것임을 알 수 있다. (나)의 내용은 현세에서의 사랑을 다루고 있으며,

내세에서 여왕과의 진실한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③ (가)의 ‘목에 멧들을 달고’는 설화에서 프로메테우스가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는 상황을 재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보기>의 ‘자기희생의 의지’와 관련지어 화자가 감수하고자 하는 희생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나)의 ‘큰 불’은 설화에서 지귀가 불귀신이 된 내용과 관련이 있다. ‘큰 불’을 통해 신분의 장벽을 의미하는 ‘신라땅 모든 사슬’을 극복하고 사랑을 이루기 바라는 화자의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46. 4 47. 5 48. 1 2403

**(가) 김기림, 「태양의 풍속」**

이 시는 자연물인 ‘태양’을 소리 높여 부르는 행위를 통해 태양을 곁에 데려오기 위한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형상화하고 있다. ‘태양’은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새로운 정신으로, 화자는 마음의 무너진 터 위에 태양을 모시고, 어머니, 고향, 사랑, 희망이라 부르겠다고 하면서, 태양이 아침을 데리고 오는 유쾌한 손님처럼 찾아와 화자의 가슴속에서 불결한 것들을 없애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어둠과 밝음의 대립적 속성을 가진 시어들을 활용하는 시상 전개 방식을 통해 잘 드러나 있으며, 새로운 시 세계를 지향하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나) 천양희, 「마음의 수수밭」**

이 시는 화자의 내면을 ‘수수밭’에 비유하여 공간화하고, 화자를 일깨우는 다양한 대상을 활용하여 내면 의식의 변화와 성찰을 형상화하고 있다. 내적 혼란을 겪고 있는 화자는 어둡고 괴로운 마음 상태에서 산을 올려다보기도 하고, 산을 오르기도 하면서 하늘과 푸른 것을 보게 되는데, 처음에 땅을 향하고 있던 화자의 시선이 산 위의 산, 하늘로 향하게 되면서 점점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고 심리적 안정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 감각적으로 드러나 있다.

**46.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을 파악한다.**

(가)에서 화자의 내면을 ‘푸른 잔디밭’, ‘흰 방천’에 비유하면서 색채어를 사용하였다. (나)에서도 화자가 올려다보는 하늘의 자리를 ‘싱싱하게 푸르다’고 했고, ‘푸른 것’들이 화자를 올라가라고 하는 장면에서 색채어를 사용하였다. (가)와 (나)는 모두,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적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가)의 ‘간밤’, ‘아침’, ‘밤’이 시간성을 드러내고 있고, (나)의 ‘저녁’이 시간성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가)와 (나) 모두 시간성을 드러내는 표지를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7.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한다.**

㉞은 내적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세상에 속한 공간이다. 화자가 세상에 없는 길을 만들 수가 없다고 한 것은, 힘들지만 세상에 속한 길에서 내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화자가 좌절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두루미의 목통'은 화자가 태양을 소리 높여 부르기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다만 한 번이 라도'와 연결하여 태양을 데려오기 위한 화자의 간절함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② '간밤의 서리'는 부정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가 자신의 가슴속에서 없애고자 하는 대상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48.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가)에서 '나의 바다의 요람을 흔들'라고 한 것은 태양의 기운으로 화자의 내면에 생명력을 힘껏 불러일으켜 주기를 바란다는 의미이므로 화자의 내적 혼란을 심화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에서 '내 막막함도 올라간다'고 한 것은 내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분투의 과정을 보여준 것이므로 현실의 고달픔을 심화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② (가)의 '아침'은 밝음의 속성, '밤'은 어둠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명암의 대립, (나)의 '하늘'과 '땅' 사이에는 공간적으로 상하 대립이 드러나므로 대립적 시어를 통해 시상을 전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가)의 '서러운 나의 시'는 태양의 속성을 갖추지 못한 시이므로 새로운 시 정신을 갖추지 못했음을, (나)의 '수수밭이 환해진다'는 화자가 심리적 안정을 느끼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49. 3 50. 4 51. 2 52. 1 53. 4 54. 5 2405

**49.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가)는 '하늘에 달이 그렇거니 수많은 별들이 다 그렇거니'에서 어미 '-거니'를 반복하고 있다. 또, (나)는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도', '깊은 골짜기에 내려가도'에서 어미 '-아도'를 반복하고 있으며 '나뭇가지에 사뿐히 내려앉을 수 없고', '바위 틈에 엮드려 잠잘 수 없고'에서 어미 '-고'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50.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광대무변한 우주'의 일부인 '지구의 둘레를 찰랑이는' 바다를 향해 '너 또한 그렇'다고 하는 것은 '바다'를 '광대무변한 우주의 한알 모래인 지구의 둘레를 찰랑이는 접시물'과 같이 작은 존재로 여기면서 '허공에 던져진것'은 '나만이 아'니라 바다도 그러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한오리 갈댓잎에 몸을 실어' '아득한 바다 속 창망한 물구비에 씻기는 한점 바위'에 있다는 것은 화자가 자신을 거대한 세계 속의 작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므로 적절하다.

② '생은 갈사룩 고달프고' '몸둘 곳은 아무데도 없다'는 것은 화자가 자신이 '고달프고' '몸둘 곳' 없는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므로 적절하다.

③ '허공에 던져진것'이 '나만이 아'니며 달과 별들도 '다 그렇'다는 것은 화자가 자신을 달, 별들과 같은 우주 안의 다른 대상들과 동질적인 존재로 여기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므로 적절하다.

다.

⑤ ‘하늘을 덮는 나의 사념이 이다지도 작음을 비로소 깨닫는다’는 것은 화자가 ‘바다 속 한 점 바위에 누워’ 얻게 된 인간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하늘을 덮는 나의 사념이 이다지도 작’다는 깨달음을 드러냄으로써 나타낸 것이므로 적절하다.

### 51. [출제의도] 시상의 전개 과정 이해하기

[B]에는 화자가 ‘크낙산 마루턱에 올라서’서 인식한 여러 대상의 모습이 나열되고 있을 뿐 대상의 현재 모습에서 짐작한 과거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풀이]

① [A]에서 ‘다시 태어날 수 없어’ ‘마음이 무거운 날’에 ‘편안한 집을 떠나’ ‘산으로 간다’는 것에 [B]에서 화자가 한 ‘크낙산 마루턱에 올라서’는 행동의 계기가 드러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C]에서 화자가 인식한 ‘해마다 죽고 다시 태어나는’ ‘꽃과 벌레들’의 속성은 [A]에서 화자가 자신에 대해 ‘다시 태어날 수 없’다고 인식한 내용과 대비되므로 적절하다.

④ [D]에서 화자가 ‘산에서 살고 싶은’ 자신의 바람과 달리 ‘산에서 살고 싶은 마음’을 ‘남겨 둔 채 떠’나는 행동의 이유가 ‘나뭇가지에 사뿐히 내려앉을 수 없고’ ‘바위 틈에 엮드려 잠잘 수 없고’ ‘낙엽과 함께 썩어 버릴 수 없어’서임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E]에서 ‘크낙산에서 돌아온 날’에 ‘이름없는 작은 산이 되어’ ‘집에서 마을에서’ ‘다시 태어나는 변화는 [A]에서 화자가 ‘편안한 집을 떠나’ ‘산으로’ 가는 행동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므로 적절하다.

### 52.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에 따라 작품 이해하기

㉠은 ‘파도’가 ‘몰려와 몸부림치며 바위를 물어뜯고 넘쳐나는데’ ‘내 귀가 듣는것’이라 하였으므로 화자의 외부에서 비롯된 소리이며, ㉡은 화자가 ‘야호 외’친 소리가 ‘되돌아’온 것으로, 화자에게서 비롯된 소리이므로 적절하다.

### 53.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이해하기

㉣는 죽방이 ‘검소하고 소박하여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아도 남달리 시원’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 뿐 죽방이 장인이 만든 건축물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아쉬움을 드러낸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풀이]

① ㉣는 이사한 집의 특성이 ‘좁고 낮’은 데다 ‘날씨가 무’덥기까지 하여 ‘뜨거운 화로에 들어간 것 같’이 힘들었음을 드러낸 것이므로 적절하다.

② ㉤는 죽방이 ‘대나무를 깔아’ 자연물을 재료로 지어졌으며 ‘수십 명이 앉을 수 있’을 만한 규모임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는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 만큼 죽방에서 느끼는 시원함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므로 적절하다.

⑤ ㉦는 ‘잠이 들어’ ‘노인’과 만난 후 ‘그의 말을 기이하게 여겼으나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기지개를 켜고 일어났다’고 한 것에서 노인과의 만남은 꿈속의 일이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54.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나)에서 ‘높은 봉우리’와 ‘깊은 골짜기’에 가도 산에는 ‘중심이 없어’ ‘어디서나 멧새들 지저귀는 소리’ ‘여울에 섞여 흘러’간다고 하였으므로 구체적 공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없고, (다)에서 ‘가슴속’의 ‘누각’에서 ‘세상의 득실과 영욕’이 ‘구름과 안개처럼 흩어져 사라’진다는 것은 세속적 가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일 뿐, 관념적 공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나)에서 ‘땅과 하늘을 집삼아’ ‘몸만 가지고 넉넉히 살아가는’ ‘나무와 짐승들’을 보며 ‘꽃과 벌레들’을 ‘부러워’하는 것은 자연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인 산에 대한 지향을 드러낸 것이므로 적절하다.

② (나)에서 산의 ‘어디서나’ ‘지저귀는’ 멧새들의 ‘소리’가 ‘여울에 섞여 흘러’간다는 것은, 산이 서로가 자유롭게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간임을 드러낸 것이므로 적절하다.

③ (다)에서는 ‘죽방이 통쾌한 줄만 아는 ‘나’와 달리 ‘하늘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죽방도 ‘진흙탕과 같다’는 것을 통해 죽방이라는 동일한 공간에 부여하는 의미가 관점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나)에서는 ‘집을 떠나’ ‘산으로’ 가는 공간의 이동을 통해 ‘마음이 무’겁다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다)에서는 ‘월송정 숲속’에 새로운 공간인 ‘죽방’을 조성하여 ‘더위를 피’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55. 2 56. 5 57. 2 58. 3 2407

**55.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하기**

(가)는 어항 속에 갇힌 상황과 바다에서의 자유로운 상황을 대비하여 이상 세계에 대한 동경과 좌절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법관이 되거나 돈을 잘 버는 상황과, 궁터를 벗지 못했지만 자신이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상황을 대비하여 현실에 대한 인식과 자신이 추구하는 삶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가)와 (나) 모두 대비되는 상황을 제시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나)는 ‘어렵구나’라는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시적 정서를 심화하고 있지만, (가)는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지 않았다.

③ (가)는 ‘금붕어’에 인격을 부여하고 있지만, (나)는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지 않았다.

④ (나)는 ‘내 사람아’라고 특정 대상을 부르고 있지만, (가)는 특정 대상을 부르는 방식을 활용하지 않았다.

⑤ (나)는 명령형 어미 ‘-아라’를 사용하여 ‘내 사람’이 하늘을 보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가)는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지 않았다.

**56. [출제의도] 작품 이해의 적절성 파악하기**

5연에서 금붕어가 ‘한류를 끊고 헤엄쳐 가’고 싶다는 것은 어항을 벗어난 자유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을 드러낸 것이다. 6연에서 ‘배설물의 침전처럼’ ‘연령만 쌓여간다’는 것은 금붕어가 어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현실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므로 5연에서 ‘한류를 끊고 헤엄쳐 가’기 위해 6연에서 ‘배설물의 침전처럼’ ‘연령만 쌓’고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1연에서 ‘어느새’ ‘금빛 비늘을 입’었다는 것은 금붕어의 외양이 변했음을 드러내며 ‘화장한 따님’은 이러한 금붕어를 비유한 표현이다. 그러므로 ‘어느새’를 ‘화장한 따님’과 연결하여 금붕어가 이전과 달라졌음을 보여 준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다.

② 1연에서 금붕어가 ‘어항 밖 대기를 오를래야 오를 수 없는 하늘이라’고 생각한 것은 어항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 준다. 3연에서 금붕어의 ‘지느러미’가 ‘항아리를 꿰는 일이 없다’는 것은 금붕어가 어항 속에 갇혀 있는 상황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여 준다. 그러므로 1연에서 ‘오를래야 오를 수 없다’는 금붕어의 생각이 3연에서 ‘지느러미’가 ‘항아리를 꿰는 일이 없다’는 이유가 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다.

④ 4연에서 금붕어는 ‘붉은 바다’를 보고, ‘꿈이라 가르켜진/그 바다’를 넓다고 생각하고 있다. 5연에서는 그 바다에서 ‘검푸른 비늘을 입’고 헤엄치는 자유로운 상황을 상상한다. 그러므로 4연에서 ‘붉은 바다’에 대해 금붕어가 떠올린 생각이 5연에서 ‘검푸른 비늘을 입’은 상상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다.

**57.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와 기능 파악하기**

(가)에는 금붕어가 아침마다 물을 갈아주는 어항 속에서 ‘흰손’이 주는 먹이를 먹으며 지내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이를 통해 ‘어항’은 현재 금붕어가 안온하게 살아가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나)에는 가난한 사람이 마음 편하게 양심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어려운 시대에서, 양심을 지키며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바람이 불어오는 상황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바람’은 자신이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려는 화자를 흔드는 유혹으로 볼 수 있다.

**58.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나)에서 화자가 ‘법관이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과 달리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다는 것은 세속적인 가치가 아닌 화자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왔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를 통해 양심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을 확인할 수는 없다.

**[오답풀이]**

①(가)에서 금붕어가 ‘아담하게/꼬리를 젓고 돌아’서서 ‘유리벽’에 ‘머리를 부시는 일이 없다’는 것은 어항 속에서 살아가는 금붕어가 ‘유리벽’이 ‘국경임을 느껴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는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②(가)에서 어항에 갇힌 금붕어가 바다에서 ‘해초의 산림속’을 다니고 ‘쓴 매개’를 ‘삼키고 싶’어한 것은 자유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을 드러낸 것이다.

④(나)에서 화자는 ‘법관이 되’거나 ‘돈을 잘’ 버는 삶이 아닌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 ‘궁티’를 벗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화자가 ‘한 치도 얼굴을 돌리지 말아야’겠다고 한 것은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⑤(가)의 ‘꿈을 오므려/죽여버려야 한다’는 것은 금붕어가 바다로 향하고자 하는 꿈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꿈꾸는 것조차 쉽지 않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나)의 ‘평생에 죄나 짓지 않고’ 사는 것이 ‘죽기보다 어렵’다는 것은 양심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가) 김수영, 「달나라의 장난」**

이 작품은 수동적인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화자의 진지한 성찰을 형상화하고 있다. 고단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던 화자는, 돌아가는 팽이를 바라보다가 문득 팽이가 자신을 ‘비웃는 듯’하다고 느끼며 자신을 성찰한다. 화자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을 고쳐나가야 하는 운명과 책임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팽이와 달리 멈춰 있는 현재의 삶, 스스로 돌아가는 힘을 지닌 팽이와 달리 주체성을 잃어버린 현재의 삶을 깨닫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화자는 팽이를 삶의 지침을 일깨워 주는 ‘수천 년 전의 성인’과 같은 존재로 형상화하고 있다.

**(나) 복효근, 「대숲에서 뉘우치다」**

이 시는 대숲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순수한 동심의 세계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성찰을 형상화하고 있다. 딸 인혜와 대숲에 간 화자는 대나무에서 물소리가 들린다는 아이의 말에, 댓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라고 설명한다. 그후 아이가 더 이상 대나무에 귀를 대지 않는 것을 보며, 자신이 아이의 동심은 물론 동심의 세계에서 펼쳐질 수 있었던 생명력이 넘치고 인간과의 교감이 이뤄졌던 대자연의 풍경까지 빼앗았음을 뒤늦게 깨닫고는 후회와 자책의 정서를 느끼고 있다.

**59.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을 파악한다.**

(가)에서 돌아가는 팽이는 화자에게 고단한 삶, 주체성이 결여된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데, 이는 작품의 주제 의식과 긴밀히 연결된다. 따라서 (가)는 ‘팽이가 돈다’라는 동일한 시구를 반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나)에서 공감각적 이미지가 사용된 시구는 ‘푸른 물소리’인데, 이는 아이가 들은 대나무 속 물소리이며, 화자에게는 자연에 내재한 생명력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나)는 공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해 대상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 ① (나)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 ② (가)는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지 않았고, (나) 역시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 ④ (나)는 의문의 형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60. [출제의도] 외적 증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나)에서 ‘나’는 대나무 속에서 물소리를 들었다는 아이의 말에, 그 소리의 정체를 댓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텅 빈 대나무 속을 울려서 물소리처럼 들리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동심을 지닌 아이와 반대되는 시각에서 나온 말이므로, 자연이 지닌 생명력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한 말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 ① ‘나’는 현실의 삶에 쫓겨 다니고 다른 집들보다 여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나’의 생활이 고단함을 알 수 있다.
- ② 팽이의 스스로 도는 힘은 주체성을 뜻하는 것으로 팽이가 ‘나’를 울리거나 비웃는 것에서 ‘나’가 팽이를 보며 주체성을 갖추지 못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비애와 자조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1. [출제의도] 시구의 의미를 이해한다.**

㉔은 팽이가 도는 것을 바라보던 화자가 일상의 세계, 자신의 나이와 삶의 무게로부터 벗어난 채 순수한 눈으로 팽이에 집중하려는 태도를 드러내는 구절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의구심을 떠올리거나 이를 버린다는 말, 팽이라는 사물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파악한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④ 화자가 아이에게 물소리의 정체를 설명한 직후 아이는 동심을 잃어 더 이상 물소리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아이에게 나타난 변화가 자신의 탓이라는 화자의 생각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⑤ 동심을 빼앗은 것을 뒤늦게 깨달은 화자가 대숲에서 푸른 뗏가지가 때리는 회초리를 맞겠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잘못을 느끼고 이에 대한 질책을 받아들일려고 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 사관학교 해설

1. 2 2. 2 3. 3 4. 2 21학년도

1.

(가)는 비와 새를 통해, (나)는 송천동을 통해 내면을 투영하고 있다.  
내면의 투영은 화자의 감상이 있는 한 무조건 허용된다.

### [오답풀이]

- ① 두 시 모두 공간의 이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③ (가)는 명사형 총결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④ 두 시에서 여유의 정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⑤ 수미상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2.

<보기>만으로 풀 수 있는 선지다. <보기>에서 이 시가 나그네의 시점에서 쓰인 시임을 알 수 있다. 또 ‘한 닷새’ 내리는 비는 나그네가 쉴 수 있게 해주는 비고, ‘초하루 삭망’에 오는 비는 일하지 못할 때 오는 아무 상관없는 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 화자(나그네)가 ‘한 닷새’ 내리는 비에 갖는 심정과 물가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이 ‘초하루 삭망’에 오는 비에 갖는 심정은 같지 않고, 물가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은 ‘초하루 삭망’에 오는 비에 안타까워 하지도 않는다.

### [오답풀이]

① 변주를 통해 비가 그치지 않는 상황임은 쉽게 알 수 있다. 이것이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는지가 문제이다. <보기>를 보면 시에서 비는 ‘한 닷새’ 내리는 비와 추적추적 계속 내리는 비 두 종류고, 후자의 경우 화자의 심정과 처지에 맞물려 당대 우리 백성의 서러움을 나타낸다고 한다. 변주가 나타난 1연의 “올지라도 한 닷새 왔으면 좋지”라는 말로 이 비가 그 이상 온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니 변주되어 나타난 비는 추적추적 계속 내리는 비이고 이는 화자의 처지를 부각한다.

3.

㉠에서 “가도 가도”라는 표현은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은 벗어나고 싶은 정서를 포함한다. (나)시의 시상은 ㉠을 보고 하는 과거 회상이다. ㉠은 과거 상황에 대한 정서를 무조건 환기한다.

### [오답풀이]

- ① (가)에서 재회에 대한 열망은 나온 적이 없다.
- ② (가)에서 극복의지는 없었다. (나)에서 대상에게 갖는 연민의 정서는 없었다. 화자의 유년에 대해 연민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가)에서 너무 확실하다.
- ⑤ 화자의 인식 전환은 (가), (나)에서 모두 없었다.

4.

‘어느 집 양자’로 들어간 아이가 있지만 그제 화자는 아니다.

**[오답풀이]**

① 화자가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음과 “유난히”라는 표현이 쓰였음을 생각하면 어두운 화자의 내면과 밝은 햇빛을 대비시킨다고 해석할 수 있다.

5. 2 6. 4 7. 2 22학년도

5.

(가)에서는 고목, (나)에서는 누에에 인격을 부여한다. 둘 다 시련을 견디고 있으니 인격 부여라 할 수 있다.

**[오답풀이]**

- ① 없다 그냥
- ③ 둘 다 시련의 이동은 없다. 바라보는 대상이 하나인데...
- ④ 둘다 없다. 음성상징어는 의성어, 의태어 중 하나다. 근데 없다.
- ⑤ 인식 전환은 일어나지 않는다.

6.

회한은 뉘우치고 한탄하는 것이다. 반성이 봐도 된다. [D]에서는 이런 정서로 해석될 여지가 없다. 뒤의 대목과 함께 보면 [D]부분은 구멍을 가꾸려는 때인 것이지 무언가를 반성하는 때가 아니다.

**[오답풀이]**

② 유추는 대상 간 비교가 있어야 한다. 이 시는 ‘어느 누구의 삶인들 아니랴’ 라는 대목으로 인간의 삶을 비교 대상으로 제시했고, [A], [B] 두 대목 모두에 구멍을 지나는 바람의 이미지를 제시하여 공통점을 부여한다. 이는 오동(고목)과 인간의 삶 간의 유추(비교)라 할 수 있다.

7.

**<보기>에서 어떤 인과나 과정이 제시되면 잘 봐줘야 한다.**

<보기>의 인과는 [스스로와의 결별-(인고의 시간, 시련)->새롭게 거듭남(성숙)] 으로 정리된다. 이때 존재의 소망 실현에 도움이 되는 환경은 시련이다. (가)에서는 바람, (나)에서는 고치가 그 환경이다. 따라서 (가)의 ‘한 마리’가 ‘세 들어 새끼칠 수 있’다는 것은 소망 실현에 도움이 되는 환경이라 할 수 없다. 이는 오히려 타자를 포용할 수 있게 새롭게 거듭남(성숙) 고목을 의미한다.

**[오답풀이]**

③ 무언가를 가꾼다는 것은 능동적인 태도를 함의한다. 그러니 (가)에서 구멍을 ‘가꾸’는 것은 스스로 성숙의 주체가 되는 태도를 강조한다 할 수 있다. (나)에서는 누에들이 스스로 ‘안쪽에서 뚫어야’ 한다고 하기에 위 태도를 강조한다 할 수 있다.

8. 5 9. 4 10. 1 23학년도

8.

두 시 모두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고 현재형 어미의 효과는 현장감을 부여하는 것이다.

**[오답풀이]**

- ① 두 시 모두 공간의 이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② (가)에 지시어는 나오지 않는다. (나)에는 좀 있으나 연속적인 배치는 보이지 않는다.
- ③ (가)에 대화로 볼 만한 것은 없다.
- ④ 두 시에 모두 도치는 쓰이지 않았다.

+ 도치는 명확히 보이지 않는 이상 거의 허용되지 않는다.

9.

시어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시에서 사람들이 어우러져 낯선 데가 하나도 없어지는 건 ‘한강’을 넘어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 한강은 장소적인 의미 보단 이 어우러짐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시간(경계)이라 볼 수 있다. 출발->한강 까지의 시간이 어우러짐에 필요하다는 말이다. (나)에서 ‘고향의 풀냄새’와 ‘귀뚜라미 울음’으로 충만한 곳은 귀성열차의 찻간이다. 여기까진 허용할 수 있다. 그런데 선물 보따리의 종착역으로 인식된다? ‘선물 보따리가 달빛 속을 달려가고’ 라는 대목을 보면 ‘선물 보따리’는 귀성열차를 의미하는데 그럼 귀성열차의 찻간이 귀성열차의 종착역으로 인식된다? 말이 안된다.

**[오답풀이]**

⑤ 서로 공통의 기억(불거지가 많이 잡히던 저수지, 대목장이 크게 서던 기억)을 제시하는 발화다. 공통의 기억으로 대화를 시작하는건 대표적인 심리적 거리를 줄이는 방법이다. 잘 모르겠다면 X쪽같은 내새끼라도 보도록 하자. 오X영 박사님이 금쪽이들이랑 상담 시작할 때 하는게 이거다.

10.

내면의 투영은 화자의 생각, 감정, 평가 등이 있으면 허용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④ ㉠에서 ‘슬픈 역사’라 하였으니 비애의 정서는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에 안도의 정서는 허용할 수 없다. 안도하기 위해서는 불안한 상태가 앞서 있어야 한다. ㉡의 흘린 땀과 눈물은 노력이지 불안이 아니다.

⑤ ㉠에는 안타까움은 있으나 성찰은 없다. 성찰은 과거를 돌아보고 그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행위다. 그러나 ㉡은 과거 회상만 있다.

11. 2 12. 1 13. 4 24학년도

11.

(가)에서는 유성->조치원->공주->온양->서울로의 명확한 공간 이동과 그때마다 바뀌는 초점(들판->마을 어귀->어느 산마루->내 안)이 보인다. (나)에서는 공간은 높지로 그대로이면서 묘사의 초점이 그 새들->내 몸->이 높으로 바뀐다.

**[오답풀이]**

- ① 두 시에 모두 시적 청자는 없다.
- ③ (가)에서 집층적 표현은 없다.
- ④ (나)에서 시적 공간의 변화를 보여 주는 대목은 흰뺨검둥오리가 비상하는 대목이고 이견 상승 이미지다.
- ⑤ (가)에 색채 대비는 없고 (나)에 이미지의 대립도 없다.

**12.**

‘어느’는 특정 무언가를 지목하지 않는다. 구체성을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⑤ 나무를 기르게 된다는 얘기는 뽑아내는 것에 실패하고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것이니 수용이라 할 수 있다.

**13.**

‘산산조각나기 위해 팽팽한 거울’은 ‘늪’을 의미한다. <보기>에 따르면 늪은 삶의 진실을 뜻하는 시어지 육신의 한계를 뜻하는 시어가 아니다. 육신이 세상에 얽매어 있으면서도(육신의 한계) 영혼의 자유로운 비상을 꿈꾸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표상하는 시어는 흰뺨검둥오리이다. 따라서 ‘거울’을 ‘산산조각나기 위해 팽팽한’ 상태로 표현한 것이 육신의 한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없다.

**[오답풀이]**

- ① (가)에서 재회에 대한 열망은 나온 적이 없다.
- ② 시인이 늪과 하나가 되고 있다는 <보기> 정보를 고려하면 늪의 새가 비상하며 들리는 소리가 내 안에서 들린다는 것은 늪과 시인이 하나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4. 1 15. 2 16. 4 25학년도**

**14.**

(가)는 ‘돌아오지 않는’, (나)는 ‘박수 소리’ 라는 시어가 반복된다.

**[오답풀이]**

- ② (가)에는 쉼표의 잦은 사용이 없다.
- ③ 대상의 이상적 모습은 두 시 모두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 ④ (가)에서 명사로의 문장 종결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⑤ (가)에서 감탄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15.**

‘할아버지도 언제 난 지를 모른다’는 것은 ‘늪은 버드나무’의 나이를 강조하는 것이지 과거의 기대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뜻으로는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까마귀와 두루미가 날아가는 상실의 축적에서 비롯된 아픔으로 해석할 수 있다.

16.

(가)에서 ‘강가로 내려갔다가도 노을에 함뿍 자춧빛으로 젖어서 돌아오곤’ 하는 행동은 앞선 1, 2연의 상실에 대한 화자의 반응이다. 그러니 이는 극복의 시도라 볼 수 있고, 이어지는 4연에서 여전히 상실의 아픔이 이 시도가 실패했다고도 볼 수 있다. (나)에서 화자는 뺨이에서 내려가지 못한 것이지 이것을 견디고자 한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③ (가)에서 사계절의 반복은 시간이 흐른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는 수년간 반복된 경험을 한 문장에 압축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나)에서 ‘슬로비디오’는 드라마에서 슬로우 거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정상적이라면 5초 걸릴 장면을 길게 슬로우 걸어버리면 50초는 그 장면이 느리게 이어지는 것처럼 ‘슬로비디오’는 쓰러지는 짧은 순간을 길게 확장하여 제시한 표현이다.